

智異山 老姑壇의 半世紀前과 오늘

海拔標高 1,506「미터」의 智異山老姑壇은 여름에도 모기장과 「아이스크림」이 必要없고 솟는 우물 물은 그대로 不老甘水라고 表現되기도 한다.

때로 雲海라도 펼쳐지면 多島海의 복판에 선듯하여 地上天國이 여기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는 이곳에 半世紀前인 1920年代에는 美國人 宣教師들의 休暇村이 있었다.

第2次 世界大戰으로 敵國人이 된 宣教師들이 本國에 強制追放될 때까지 이 休暇村은 돌과 통나무를 利用한 오두막型에 갈대나 蓆을 엮은 宿舎가 30餘棟, 教會를 兼한 集會所만이 오지벽들로 뽕죽집이었으며 小溪川을 自然石으로 막아 「풀」장까지 갖추었던 本格的인 休暇村이었다.

宣教師들이 追放될 때 日本官憲에 의하여 押收 搬出된 物件 가운데 「울건」 10여點과 「피아노」가 數臺, 그 當時 富者집에나 있던 「싱거미신」이 30臺씩 끼어 있었다는 것으로도 그 알찬 利用을 알 수 있다.

여름철이 아니면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管理人만이 지키던 이 休暇村은 土地所有者인 京城帝國大學과 長期借用的 賃貸借契約으로 使用되었으며 집을 짓기 위한 통나무까지 外地에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都市隣接의 松林 고개에 強盜가 많았던 그 時節에 異國땅에서 原始에 가까운 密林地帶였을 智異山에 休暇村을 마련하고 그 숲에 어울리게 집을 지었던 그 생각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앞선느낌이다.

우리의 경우 지금에서도 여기에 집이나 別莊을 지으려면 「시멘콘크리트」와 「호텔」型 아니면 뽕죽집을 늘어놓지나 않았을지 걱정이지만 특히 따로 길을 내지도 않고 老姑壇의 頂上이나 主展望地를 避하여 자리잡으면서 適當한 間隔을 維持

하고 있음은 敬嘆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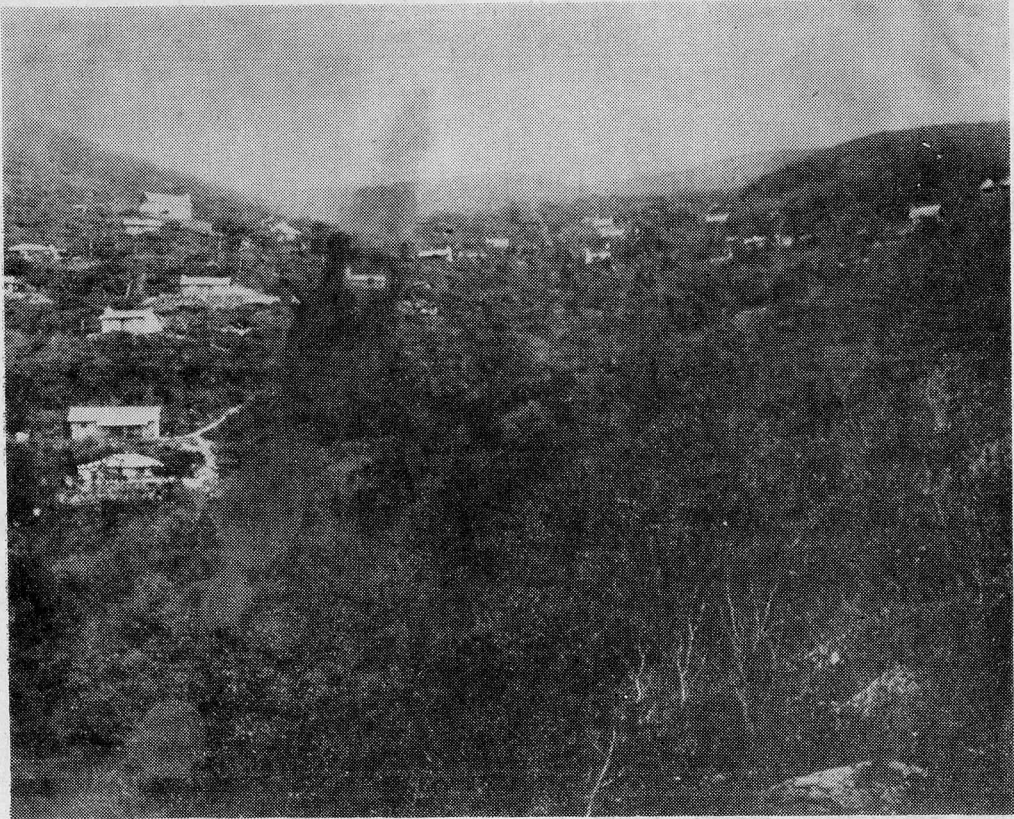
交通手段이 無에 가까웠을 그 當時에 화엄寺—老姑壇間의 오르막 4時間 길을 오르면서 그들이 맛 보았을 太古의 情緒는 지금에 견줄 수 없었겠지만 老宣教師들이 시골 農夫들의 지게 등에 업혀다니면서 남긴 「에피소드」와 一往復에 5日分이 넘는 품삿을 받았던 짐지기는 지금도 옛애기로 남아 있다.

6.25 動亂後 다시 이곳에 休暇村을 再建하려던 宣敎部는 이제 사람의 往來利用이 많아진 것을 보고 全國을 踏查하였으나 亦是 智異山만한 곳이 없다하여 이웃한 왕시루峰(1,231m)에 새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도 周圍와 어울리게 낮으막한 「바라크」 風의 집을 짓고 갈대, 蓆의 알대만을 엮어 지붕을 덮는 方式을 취했다. 이 지붕 이음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주먹크기의 한류음에 數百원씩을 주었다 하며 老姑壇의 옛 休暇村에 비해 아주 작은 數棟의 宿舎가 있을 뿐이지만 여기에도 「풀」場이 있는데 現地 사람들은 몇分을 전디기 어려운 차가운 물 속에서도 外國人들은 水泳을 즐긴다는 管理人의 이야기다.

國立公園計劃上 老姑壇, 왕시루峰이 모두 自然保全地區에 屬하게 되어 이제 새로운 施設은 들어 설 수 없겠지만 公園入口에 現代的 施設을 集中시키지 않고 公園 內部에 周圍와 調和되는 施設을 配置하거나 休暇村을 마련하는 外國의 公園利用 「패턴」과 견주어 생각할 때 앞으로 立案 되어야 할 우리나라 國立公園의 利用計劃樹立에 하나의 重要한 參考 檢討對象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寫眞 및 資料提供 威泰式 智異山 老姑壇山莊 管理人)



半世紀前の 智異山 老姑壇 ↓

1920年代에 1,500「미터」가 넘는 이곳에 美國 宣敎部の 休暇村이 있었다. 우리나라 風의 오 두막과 敎會(集會所)와 溪流를 利用한 「풀」場 까지 갖춘 本格的인 것이었으나 그때만 해도 原始를 느끼게 했을 樹海 탐인지 集團施設의 냄새가 나기는커녕,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자 들이 亦是 自然利用에도 우리 보다 앞선 느낌 을 준다.

오늘의 智異山 老姑壇 →

解放直後の 山林放從과 麗順叛亂, 6.25등의 共匪討伐, 人間松虫 등의 複合要因이 있었지만 오늘의 老姑壇이 오히려 荒廢의 느낌을 준다. 國立公園의 自然保全地區가 된 다음에 세워진 「시멘 콘크리트」의 山莊과 便所가 오히려 어 울리지 않고 옛 宣敎部 休暇村의 廢墟가 된지 歷史性을 느끼게 하는듯 하다.

